인니 제조업 혁신 이끈 K-스마트공장… 기술 수출까지 결실

이노비즈협회, 4년간 ODA 사업 성과
현지 제조기업 30곳 디지털 전환
참여기업 생산성 최대 60.1% 향상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134명 양성
국내 기업 150만달러 수출 계약 체결



지난 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협동조합부 청사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스마트팩토리 ODA 사업 성과보고회'에서 (앞줄 왼쪽에서 여섯번째부터) 윤순구 주인도네시아 대사,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노비즈협회

한국의 스마트공장 혁신 기술과 전문 인력 양성 노하우가 인도네시아 제조 현장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참여기업들의 생산성이 목표치보다 최대 4배 가까이 느는 등 가시적인 효과도 곳곳에서 나타났다. 'K-스마트팩토리' 기술 수출 가능성도 엿보였다.

5일 이노비즈협회에 따르면 지난 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협동조합부 청사에서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을 비롯해 페리 줄리안또노(Ferry Juliantono) 인도네시아 협동조합부 장관, 윤순구 주인도네시아 대사 등 양국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스마트팩토리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성과보고회'를 열고 4개년간의 사업 성과를 발표했다.

기술혁신기업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이노비즈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023년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4년간 총 63억8000만원을 투입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산업전환을 위한 스마트팩토리 도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수행기관으로 참여했다.

특히 이 사업은 일방적인 물적 원조 방식에서 탈피해 인도네시아 제조업이 스스로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자립형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노비즈협회는 4년간 인도네시아 협동조합부·중소기업부, 비누스대학교와 협력해 2024년 6개사, 2025년 12개사, 2026년 12개사 등 총 30개사의 제조 공정을 디지털로 전환해 생산성 혁신을 뒷받침했다.

특히 2024년에 참여한 6개사의 생산성은 전년 대비 평균 38.3%나 늘어나며 목표치인 10%를 크게 웃돌았다. 지난해 참여한 12개사 가운데 생산성 측정을 끝낸 9개사의 평균 생산성도 14.8% 증가하며 목표치(12%)를 넘어섰다.

그중에서도 자동차부품 생산기업인 PT. Bimuda Karya Teknik는 스마트공장 컨설팅·구축 등의 지원을 통해 생산량이 무려 60.1%나 향상됐다. 낙농협동조합인 PT. SUSU KPBS는 품질과 생산성이 각각 20%, 10%씩 높아졌다.

이노비즈협회는 스마트팩토리 관련 전문 기술인력 134명도 양성했다. 당초 양성 목표 인원은 130명이었다. 이 가운데 43명은 한국으로 초청해 연수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인도네시아 최초의 스마트팩토리 전문 교육센터가 비누스대학교 브카시 캠퍼스에 문을 열었다. 이곳에는 이론 강의실, PLC 트레이닝 랩, 제조 물류 실습 랩 등을 갖추고 있다. 지난해엔 국내 공급기업 솔루션 상설 전시장도 꾸몄다.

한국의 인도네시아 기술 지원은 국내 우수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기업의 해외 수출로도 연결됐다.

국내 소프트웨어 공급기업인 이엠포커스(EM Focus)는 현지 기업인 PT. Internex Indonesia와 150만 달러(약 20억원)의 자체 개발 제조실행시스템(MES)을 2년간 공급하는 본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다른 국내 기업인 긴트는 현지 회사와 협력해 투자 유치·농기계 자율주행 시스템 공동 마케팅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광천 회장은 "이번 ODA는 인도네시아 중소기업의 자립 생태계를 완성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기술혁신형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 진출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새로 출범한 AVITEK KUKM과 긴밀히 협력해 아세안 시장 내 한-인니 기술 협력을 전 방위로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LG화학, 배터리 선방에도 석화 적자에 발목

3분기 영업익 5612억·전년比 17.4%↓
석유화학 1756억 손실·첨단소재 개선
中 공급과잉 지속에 내년 회복도 난항

LG화학이 올해 3분기 석유화학 부문에서 다시 적자를 냈다. 2분기 흑자를 냈던 석유화학이 원료가 역래깅과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한 분기 만에 손실로 돌아섰다. 첨단소재와 배터리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의 수익성은 개선됐지만 내년에도 중국발 공급과잉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석유화학의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LG화학은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15조4960억원, 영업이익 5612억원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4%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17.4% 감소했다. 전분기 대비로는 매출이 9.3% 늘었고 영업이익은 6.4% 줄었다.



LG화학 여수 NCC 전경. /LG화학

사업부문별로는 석유화학 부문이 영업손실 1756억원을 기록했다. 비싸게 사들인 원료로 만든 제품을 제품 가격이 떨어진 뒤에 팔아 마진이 줄어드는 역래깅에 운반비 증가와 환율 하락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첨단소재 부문은 매출 1조726억원, 영업이익 397억원을 냈다. 전지소재 물량 증가와 일회성 수익 반영, 반도체·자동차 등 전자소재의 견조한 실적에 힘입어 전분기 대비 매출과 수익성이 모두 개선됐다.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은 매출 9조6434억원, 영업이익 7560억원을 거뒀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출하량이 크게 늘고 전기차용 원통형과 고전압 미드니켈 파우치 배터리 공급이 증가하면서 매출이 성장했다. 유럽 공장 가동률 개선과 북미 ESS 생산 안정화로 고정비 부담이 완화되며 수익성도 높아졌다.

업계에서는 석유화학 업황이 내년에도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주력 제품인 고부가합성수지(ABS)는 중국산 저가 물량이 늘어난 데다 가전·자동차 수요 회복이 더뎌 고객사들의 신규 구매가 감소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는 2031년까지 약 800만톤 규모의 설비가 폐쇄될 예정이지만 같은 기간 신증설 규모는 2900만톤에 달한다. /원관희 기자 wkh@

김윤 "AI를 R&D 핵심 인프라로 삼아야"

〈삼양그룹 회장〉

판교서 '삼양 이노베이션 R&D 페어'

"인공지능(AI)을 연구·개발(R&D)의 기본 인프라로 내재화해 차별화된 연구 경쟁력을 구축해야 한다"

김윤 삼양그룹 회장은 지난 4일 경기도 판교 삼양디스커버리센터에서 열린 '삼양 이노베이션 R&D 페어(SIRF) 2026'에서 "글로벌·스페셜티 사업 포트폴리오 고도화를 기술적으로 뒷받침하고 중장기 사업 전략과 연계해 R&D의 우선순위와 핵심 역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략 방향을 제시한 데 이어 연구 현장에는 과감한 도전을 주문했다. 김 회장은 "미래 고객의 변화와 산업 흐름을 살펴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적극 제안하고, 사업화 가능성이 확인된 연구는 책임감을 갖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R&D는 필연적으로 한번의 성공을 위해 수많은 실패를 거칠 수밖에 없는 만큼, 끝까지 해내겠다는 열정으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삼양그룹 연구원들이 한 해 동안 거둔 R&D 성과를 전시하고 발표하는 자리로, 올해 15회째를 맞았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조기 상품화에 성공한 과제를 선정해 포상하고 연구원들의 연구개발 의욕을 높이고 지식을 공유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올해 우수상에는 '레이저 용접용(Laser-weldable) 컴파운드 소재 개발' 과제와 '원자력 발전소용 이온교환수지 개발' 과제가 선정됐다. /원관희 기자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근절에 경찰도 나선다

중기부, 11일부터 집중신고기간 운영

올해 1~10월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723건 가운데 14건을 수사의뢰하고 2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정부는 '제3자 부당개입 근절 집중신고기간'을 오는 11일부터 12월8일까지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집중신고기간엔 경찰청이 새롭게 참여해 불법 브로커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서울 용산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경찰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등이 참여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TF) 7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우선 신고포상금 확대, 자진신고자 면책 확대 등을 통해 신고 유인을 높이고 접수된 신고가 수사의뢰 등 실질적인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청은 대부업법 위반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대출 실행 조건으로 수수료, 컨설팅 비용 등 명칭을 불문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부터 돈을 받는 행위가 대부업법 위반 행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승호 기자

롯데렌탈

수익성 중심 체질 개선 3분기 실적 동반 성장

롯데렌탈이 고수익 렌탈 상품 확대와 비용 효율화로 올해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을 모두 끌어올렸다. 롯데렌탈은 5일 공시를 통해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7754억원, 영업이익 929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3%, 4.4% 증가한 규모다. 영업이익률은 12.0%로 0.3%포인트 개선됐으며, 직전 분기와 비교해도 영업익은 9.8% 늘었다. 일회성 요인을 제외한 조정 영업이익은 97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294억원으로 24% 감소했지만, 일회성 요인을 제외한 조정 당기순이익은 455억원으로 15.5% 늘었다. /양성운 기자 ysw@

신세계까사, 디자이너 협업 가구 매출 성장세

MK2·아우로라 2·3분기 연속 성장

신세계까사의 리빙&라이프스타일 브랜드 '까사미아(CASAMIA)'가 해외 유명 디자이너들과 협업해 선보인 '디자이너스 컬렉션(DESIGNERS COLLECTION)'이 출시 초기 흥행을 넘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올해 2월 출시한 'MK2' 다이닝 시리즈와 '아우로라' 베드룸 컬렉션은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나란히 매출이 증가했다.

5일 신세계까사에 따르면 일본의 가구 디자이너 '미키야 고바야시(MIKIYA KOBAYASHI)'와 협업한 'MK2' 다이닝 시리즈는 2분기 매출이 전분기 대비 98% 증가한 데 이어 3분기에도 20% 신장했다.

간결하고 모던한 디자인에 원목 특유의 따뜻한 감성을 더한 것이 특징으로, 유행을 타지 않는 스타일과 다양한 인테리어에 어우러지는 실용성을 갖춰 2030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세계적인 디자이너 '파트리시아 우르퀴올라(PATRICIA URQUIOLA)'와 협업한 '아우로라(AURORA)' 베드룸 컬렉션도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특히 지난 2분기 매출이 전분기 대비 3배가량 신장했으며 3분기 매출도 두 자릿수 증가했다.

아우로라는 독창적인 실루엣과 섬세한 디테일, 과감한 컬러와 소재의 조합으로 침실 공간에 예술적인 감각을 더한 컬렉션이다.

까사미아는 해외 유명 디자이너의 고유한 디자인 철학을 가구에 담아 소비자들의 다양한 취향에 대응하는 한편, 협업 컬렉션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김승호 기자